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1. 11 (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상북도,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조사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 - 학대아동 조기발견 위한 양육상황 점검(1~3월, 읍면동, 경찰 협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49명), 아동보호전담요원(24명) 확대 배치	아이세상 지원과	
② **경북도, 7월 자치경찰제 도입 앞두고… 준비단 출범** - 자치경찰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기여	정책기획관실	
③ **경북도, 현장 중심의 미래 농업인재 모집 한다.** - 1. 11~2. 1(22일간), 41개 과정 1,024명 모집 -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으로 신청	농식품유통과	
④ **올해 기초연금 인상하고, 지급대상자도 확대한다.** -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보전으로 노후생활 보장 지원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월 최대 단독 30만원, 부부 48만원 지급	어르신복지과	
⑤ **경북소방, '119아이행복 돌봄터' 운영… 호응 좋았다.** -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극복을 위해 작년 7.1 일부터 운영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보도자료

【21. 1. 11(월)】

담당부서	이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지원과			
작 성 자	과 장	조 현 애		
	팀 장	신재일	담당자	오수희
연 락 처	054-880-4591			

경상북도,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조사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 -
- 학대아동 조기발견 위한 양육상황 점검(1~3월, 읍면동, 경찰 협조)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49명), 아동보호전담요원(24명) 확대 배치 -

경상북도는 아동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 10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全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하며,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1월 1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에서는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선책이라는데 공감하며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하였으며, 위기의심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

기로 하였고, 후속조치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한다.

또한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군 읍면동 직원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1월 8일부터 3개월간 양육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아동 및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再)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된 일시보호 시설을 경북도내에 설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비지원 건의 등 道차원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아동권리보호는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이므로 경상북도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과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 경상북도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

□ 회의개요

○ 일　　시 : ’21.1.11.(월), 14:00 ~ 16:00

○ 장　　소 : 도청 호국실(209호)

○ 참　　석 : 15명(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위원 및 실무자)

- 아이세상지원과장,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4개소),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주요내용 : 유관기관별 아동학대 대응방안 및 협조사항 등 논의

□ 세부일정

시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14:00~14:02 (2’)	인사말씀	아이여성행복국장
14:02~14:20 (18’)	경북도 아동학대 추진현황, 현안사항, 대응방안 및 협조사항 전달	아이여성행복국장
14:20~15:30 (50’)	유관기관 아동학대 대응방안 및 협조사항 발표	경찰청 , 교육청, 남부아보전, 동부아보전, 북부아보전, 서부아보전,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지역아동센터
15:30~16:00 (30’)	대응방안 토의	도, 경찰청 , 교육청, 남부아보전, 동부아보전, 북부아보전, 서부아보전,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지역아동센터

보도자료 【21. 1. 11(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작 성 자	기획관	이경곤		
		담 당	장미정	주무관	정성웅
	연 락 처	054-880-8892			

경북도, 7월 자치경찰제 도입 앞두고… 준비단 출범

- 자치경찰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기여 -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되었고,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되었다.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이다.

앞으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도 설치하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6월까지 내실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21. 1. 11(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 성 자	과 장	조 환 철		
	팀 장	박찬국	주무관	최수경
연 락 처	054-880-3333			

경북도, 현장 중심의 미래 농업인재 모집 한다.

- 1. 11 ~ 2. 1(22일간), 41개 과정 1,024명 모집 -
-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으로 신청 -

경상북도는 1월 11일 ~ 2월 1일까지 22일간 2021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41개 과정 교육생 1,024명으로 전체 56개 과정 1,474명 중 기모집한 14개 과정 390명(농업마이스터 과정, 농업최고농업경영자 과정)과 2월중 별도 모집하는 1개 과정 60명(귀농귀촌아카데미)을 제외한 인원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며 경작지도 도내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www.aceo.kr)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입학원서를 교부 받아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경북대, 안동대 등 위탁 교육기관으로 우편·팩스로 입학원서와 농어업인 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등)를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년 교육과정은 농어업의 변화 및 교육생 만족도 조사 등을 적극 반영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농식품수출전문가 양성과정 △농촌경관코디네이터 △한방 스마트그린파머 양성전문가 과정 등 12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영농정착, 가공, 경영 등 6개 분야 4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22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별 통보한다.

교육운영은 8~10개월간 매주 또는 격주 정해진 요일에 과정별로 경북농민사관학교와 위탁교육기관(대학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 할 계획으로 경상북도 정책과 연계하여 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지역 내 농산물 이해와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을 위하여 농업경영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소득과 연결되는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된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은 현재까지 21,558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지식농업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실용화 교육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

조환철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인재육성 인큐베이터 및 산업정보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여 농업에 희망을 더 할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1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에 농어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스터 별첨>

2021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21. 1. 11 ~ 2. 1 (22일간)

☐ **모집인원** : 41개 과정 1,024명 ※ 총 56개 과정 1,474명

※ 기 모집 : 농업마이스터 과정 12,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2 별도모집 귀농귀촌아카데미 1

☐ **원서교부** :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www.aceo.kr), 각 교육 과정, 대구광역시 및 시·군 농어업인 교육담당부서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우편 및 팩스 접수는 접수기간까지 원서 도착

☐ **지원자격** : 경상북도 농어업인(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함)

☐ **청년 특별전형** : 모집기간 중 만40세 미만인자(1981.1.1.이후 출생자)는 농업인 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 **전형일정**

- ○ 모집기간 : 2021. 1. 11. ~ 2. 1.(22일간)
- ○ 면 접 : 2021. 2. 15. ~ 19.(기간 중)
- ○ 합격자 발표 : 2021. 2. 22.(예정)
- ○ 등록기간 : 2021. 2. 22. ~ 26.(5일간)

☐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원서 접수는 1인 1과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기타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북농민사관학교 대표번호 054-383-6903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운영팀 054-624-0106~7

보도자료 【21. 1. 11(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과 장	박 세 은		
		사무관	김동기	주무관	김연수
	연 락 처	054-880-3756			

올해 기초연금 인상하고, 지급대상자도 확대한다.

-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보전으로 노후생활 보장 지원 -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월 최대 단독 30만원, 부부 48만원 지급 -

경북도는 올해부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최고의 노인복지정책으로 꼽히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확대하여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도내 어르신 44만 5천명에게 기초연금 1조 4,674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43만 2천명, 1조 1,471억 원보다 1만 3천명을 늘리고, 3,203억원을 증액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대상을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 4천원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각각 14.2%가 인상 결정되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 명 가운데 43만 2천여 명에게 평균 24만 9천원을 지급하여 경북도의 수급률은 75.6%로

써 전국 평균 70%보다 월등히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한편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시군의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방법 등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 할 계획이다.

박세은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올해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대상자 확대로 인해 코로나19와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 분이라도 더 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1.1.11(월)】	담당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작성자	과 장	한 창 완		
		사무관	조상국	주무관	배영길
	연락처	054-880-6330			

경북소방, '119아이행복 돌봄터' 운영... 호응 좋았다.

-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극복을 위해 작년 7.1일 부터 운영 -

경북소방본부는 저출산 극복 경북형 아이행복 시책의 일환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도내 2개소(경산·영덕소방서)에서 '119아이행복 돌봄터'를 운영하고 있다.

119아이행복 돌봄터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신청대상은 만 3개월 ~ 12세 아동이다.

돌봄터 신청은 양육자의 질병이나 상해, 출장, 야근, 집안의 애사, 휴원(교) 등 자녀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119나 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62명이 119아이행복 돌봄터를 이용했으며, 신청 사유별로는 휴원·휴교, 출장·야근, 질병·상해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7~8월, 12~1월 등 방학기간 중에 돌봄신청이 집중됐다.

119돌봄터를 이용한 맞벌이 가정 이용자는 "갑자기 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아이를 맡기게 되었고, 119에서 하는 사업이라 믿고 맡길 수 있었으며 너무나 감사했다" 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한 부모 가정 직장인으로 "어린이집 마친 후 퇴근시간까지 2~3시간 정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119아이행복 돌봄터 포스터를 보고 상담 후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양육자의 질병, 상해 등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119 또는 해당 소방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북소방도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